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월 16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장소인 만수대에 술극장에는 주체예술의 개화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거룩한 체취와 숨결이 력력히 어려있는 유서깊은 극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한 기념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환희와 걱정이 차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에는 국무위원회 연수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장중한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였다.

제1부공연무대에는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빛나라 정일봉》을 비롯하여 우리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찬가, 그리움의 송가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2월의 봄빛을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주체혁명의 장구한 려정우에 인류가 알지 못하는 애민헌신의 숭고한 려사를 수놓아오신



퍼지며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당기를 힘차게 날리며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의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과시한 공연은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녀성독창과 혼성합창 《인민은 일편단심》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재청에 따라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며 우리 인민들이 애창하여온 전인민적찬가 《친근한 이름》이 다시금 울려 퍼져 장내를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당중앙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갈 불타는 맹세를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준 출연자들의 공연성공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열렬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진감하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출연자들에게 전달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중임을 자각하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크나큰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천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할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드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승리로 확신성있게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위인 송가들이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의 우리 국가의 강성변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고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새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권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의 노래가 련이어 울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드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승리로 확신성있게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위인 송가들이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의 우리 국가의 강성변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고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새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권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의 노래가 련이어 울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본사기자

## 조국강산에 하넉히는 인민의 그리움, 불타는 충성의 맹세

###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인준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어흘렀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충성의 맹세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 탄생 79돐 경축 사진전람회가 중앙과 도들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들을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부강



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 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전하는 사진문헌들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수도 평양과 각 도의 극장, 야외무대들에서 경축공연이 있었다.

평양대극장, 3대혁명전시관 앞에서는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야외공연무대를 펼쳤다.

출연자들은 려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도전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우에 강대하고 무궁변영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억년기들을 마련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무대가 펼쳐졌다.

창건지리, 려명지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과 각 도 소재지들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장식들은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파업관철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파업관철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

뜻깊은 2월명절을 맞이한 조국강산에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굽어쳐호르는 속에 광명성절경축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며 함창과 무용 《우리의 김정일동지》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남성독창 《그이의 하루》, 혼성2중창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합창 《그이의 한생》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뜨거운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권을 가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혁명생애를 숭엄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열화같은 애국의 심장을 지니시고 온넉과 심혈을 다 기울이시여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피아노를 위한 합창 《인민사랑의 노래》, 녀성민요독창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은 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녀성4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 남성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 조로》, 무용 《자강력의 기수들》 등의 종목들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혁신과 전진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나며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음을 보여준 공연은 혼성6중창과 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로 끝났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16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관현악 《눈이 내린다》로 시작된 무대에는 남성독창 《장군님은 별재산의 아들》, 즉관중주를 위한 관현악 《정일봉의 봄맞이》, 관현악 《매혹》, 녀성2중창 《아 그리워》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한평생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관현악의 장중한 울림과 형상세계로 펼쳐보였다.

뜻깊은 2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불세출의 대성인, 민족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교향곡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중에서 제3악장 《인민사랑의 노래》, 관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한없이 넓고 파사로운 품에 인민을 안으시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총직하게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 다해 받들어갈 온 나라 인민의 일편단심을 잘 보여준 피아노를 위한 관현악 《대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현악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난 음악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따라 당 제8차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 천만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